

# 당신의 어린이집은 안녕하십니까?

N개의 공론장⑩ '바꿈' 어린이집 교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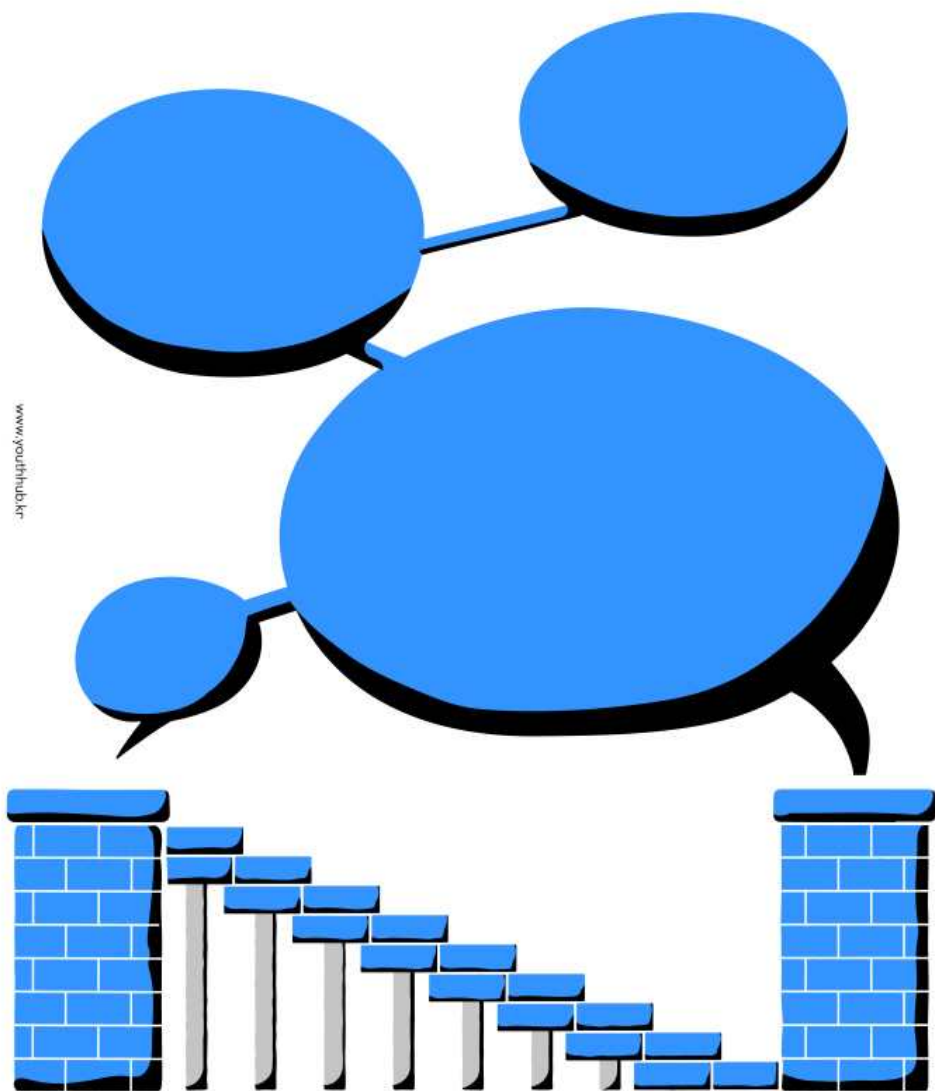
2018  
11. 24.(토)  
2pm-5pm

청년허브  
다목적홀

I·SEOUL·U  
102-1418



www.youthhub.kr



## 〈차 례〉

사회 김은희(바꿈, 세상을바꾸는꿈 이사)

영·유아교사를 바라보는 가혹한 시선 .....	
손여울 (교사경력 4년/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재학) .....	1
어린이집 CCTV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이재필 (前보육교사/교사경력 5년/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재학) .....	13
영유아교사는 퇴근안해요? .....	
이세리 (교사경력 7년) .....	31
영유아교사 직업에 만족하나요? .....	
방 현 (교사경력 4년) .....	52
지금 아이들은 어떨까? .....	
김예은 (교사경력 4년) .....	68

# [공론장①]

영·유아교사를 바라보는 가혹한 시선

손여울

# 영·유아교사를 바라보는 가혹한 시선

손여울

‘유치원’,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요즘 ‘비리’, ‘부실급식’, ‘아동학대’ 등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나요? 아마 “음..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혹은 “애들이랑 지내서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영유아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서 그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교사에게 특히, 영유아교사에게 가혹한 시선을 보내고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첫 직장을 갖게 된 한 여대생이 뿌듯한 마음을 갖고 고등학교 은사님은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동창과 함께 찾아간 나의 모교. 친구들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대로인 운동장과 교실, 복도를 보며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추억에 잠겨있을 때 쯤 눈앞에 나타난 졸업사진! 그 사진을 보니 너무나 변해버린 우리와 선생님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버렸다. 고교시절 이야기부터 풋풋했던 대학교 신입생 이야기와 최근 취업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누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교사가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취업하기 힘든 이 시기에 잘 되었다고 진심으로 축하하며 동시에 농담처럼 던진 선생님의 한 마디... “너 빨래 잘 하겠다.” 그 말은 분명 농담이었을 것이다. 비전공자라서, 그 속을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해서, 그냥 특 던진 말 한 마디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난 그 말 한 마디가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 마

음 속 깊이 어딘가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 빨래하려고, 똥 기저귀 갈아주려고, 뒤치다꺼리하려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전공자가 보기엔, 특히 아이를 키워 본 사람들이 보기엔 영유아교사라는 이 직업을 매우 쉽게 본다. ‘유치원 선생님은 그냥 애들 잘 놀아주고 엄마, 아빠 오는 시간에 보내면 되는 거 아냐?’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 ‘애를 안 키워봤는데 잘 할 수 있나?’, ‘나이도 어린데 애들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라며 20대 교사를 무시하는 사람 등 유아교육에 대해 다소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아프지 않게, 다치지만 않게 돌보는 것이 교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싹인 이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교사를 보모로 바라보는 가혹한 시선은 사라지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후회 없이, 열심히 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난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적응을 했고 나름 경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기인 3년 차. 그 무렵 나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보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 업무 파악하라 한창 바빴던 4월에 한 A의 학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나를 교사로서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즐겁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항상 표현해준다. 그런데 그 A의 학부모는 조금 달랐다. 앞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 속 내용처럼 3년차 직장인이지만 20대인 날 ‘애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나이도 어린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항상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불편하지만 나에게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준적은 없었기에 나 역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똑같이 귀가 시간에 맞춰 아이와 함께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 중요한 문서 한 장을 손에 든 채로.. 드디어 현관 벨이 울렸고 A의 엄마가 왔다. 아이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 문 앞까지 달려 나갔고 나는 아이를 뒤따라갔다. 상냥하게 웃으며 아이의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문서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 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러자 A의 어머니는 그 종이를 신발장 위에 올려놓으라며 턱으로 가리켰다. 사실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내내 어머니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불쾌한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난 것이다.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등 마는 등하고 종이를 받아주기는커녕 턱으로 가리켰으니 말이다. 하지만 거기서 학부모와 싸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곳은 한 사람 때문에 분란을 만들기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나의 직장이자 일터였다. 특히, 아이가 아닌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예뻐한다고 우리 반의 귀염둥이 아이의 어머니이니 잊어버리자고 되뇌어 봐도 그 불쾌함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래서 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당시 내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그 학부모가 나를 교사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원장님을 찾아가 학부모 대상으로 내가 직접 부모교육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처음 동료교사와 원장님은 부모교육은 그러다 망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나를 말렸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교육은 외부업체에서 해당 전문가가 기관으로 와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동료교사들 앞에서 몇 번이고 며칠이고 계속 연습, 또 연습을 하였다. 많은 노력 끝에 한 달 후 부모교육은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어머니도 그 날 참여하였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는 나를 비전문가로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쏘기 보다는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교사로서 감사의 눈빛을 보내주었다. 아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힘든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 되돌아보면 조금 과한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후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20대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가혹할 때가 있어 그 편견과 맞서 싸우기 보다는 속상해하면서 혼자 속으로 삭히는 교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지내고 지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전인적인 발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시간을 불필요한 편견과 싸우는 데에 허비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능프로그램에서 ‘붕어빵’,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프로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카메라로 담아내 어른들과는 다른 시선과 엉뚱하고도 생기발랄한 행동들이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나 역시도 재미있게 보았다. 그런데 그로 인해 안타까운 점들이 생겨났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직업인 영유아교사들에 대한 시선이다.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 당연히 행복하다. 그런데 아이들을 놀아주는 일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이 영유아교사이다.

그렇다면 영유아교사는 전문가일까? 영유아교사는 교육·보육이라는 분야에서 만큼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교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한 인간으로써 성숙하기 위한 모든 기초단계가 영유아기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부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교사들과 지내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개별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직접적으로 돕는 교사의 역할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이수정, 2007). 또한 교사는 단순히 유아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해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유아기의 중요성과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영유아들은 교육하는 데 있어 특별한 교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이, 전문직의 특성과 부합되는 면이 있다. 이은화(1991)에 따라 영유아교사직이 전문직인 이유는 첫째, 교

사는 고도의 지적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선택, 조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장기간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한다. 둘째, 유아교육은 사회봉사 기능을 가진다. 현대 사회의 유아교육은 교육뿐 아니라 지역의 성인교육과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아교육은 전문직의 본질인 사회기여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교사는 자율성을 가진다. 이들은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유아를 이해하고 가르치며, 평가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한 것에 대해 확신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넷째, 교사는 전문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교사의 교권확보와 신장 및 복지의 증진,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한 전문단체라는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구비된 윤리강령은 없으나 모든 유아교육자들이 교육자의 실천사항을 스스로 규정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다섯째,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준이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이유로 교사직은 전문적이며, 유아교사의 전문성이란 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 신념과 책임감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따라서 교사는 한 인간의 일생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유아를 지도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순히 유아를 보호하는, 쉽게 말해 '부모'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일부 사람들의 가혹한 시선들이 있어 안타깝다. 그러한 시선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시선들로 인해 교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영유아들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을까? 가정보다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또래나 부모 외의 다른 성인 특히, 교사에게 확대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박성혜, 2003)가 있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영유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도



가 높은 교사는 책임감과 창의적인 교육계획과 실행, 및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교육목표의 달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임난희, 2009)와 더불어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교육·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피해는 영유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연구결과(김영관, 2011)를 통해서도 교사와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의 스트레스가 영유아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아이는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을 하고 그 적응을 통해 또래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더 나아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둔 이유는 소수로 인해 다수의 교사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한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한 교사는 전체 교사의 0.28%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72%의 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인들에게 “너는 애 안 때리냐?”라는 농담 섞인 질문을 받기도 한다. 이것이 하나 둘씩 쌓여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교사들의 인성이 부족하다, 교사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으라면서 사회적으로 ‘교사’만의 문제로 몰아간다. 물론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설사 학대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 섞인 시선들이 쌓여 교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학부모가 많다. 그리고 CCTV를 무기삼아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기관에 찾아온다. 점점 교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아 현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에 소수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교사들로 인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다수의 교사들이 힘들어지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

직업에서 오는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직업의 직장인과 달리 직무자체가 영유아들과의 활동하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교사가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윤미정, 2011)가 있다. 이에 모든 영유아 교사들이 교육·보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부심을 느끼며 직무에 임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사는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갖고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제도적인 장치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아이도 교사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란다.

### “모든 영유아교사들에게”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나?, 조금이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 많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한 직업이 있을까요? 교실에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거나 속상한 척, 슬픈 척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아요?”하며 위로해주거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줄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진심으로 선생님을 걱정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왈칵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죠^\_^ 아이들은 어쩌면 엄마보다도 선생님을 더 의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해맑게 웃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만 힘내 봐요.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_^ 모든 영유아선생님들 힘내세요! 우리 자부심을 가져요. 아자 아자 화이팅!!

## 참고문헌

- 김영관(2011).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200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정(201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영유아 담당연령에 따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2007). 보육교사의 직업선택 동기, 전문성 인식 및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은화(2001). 왜 유아교육은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 서울: 한국어린이교육협회.
- 임난희(2009). 평가인증제도 실시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론장②]

어린이집 CCTV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재필

# 어린이집 CCTV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재필

## 교사의 일상

“예쁘게 앉아있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줄기차 해보자.”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교사들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늘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혼자서 7명의 아이들의 양치를 시킬 때면 2명은 교사가 직접 양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책을 읽거나 블록놀이를 하거나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손이 두 개인 교사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도록 두기에는 어렵다. 안전사고 문제 때문이다. 낮잠시간에도 아이들이 잠을 잘 때에도 몸은 그 동안 밀린 서류를 하고 있지만 신경의 일부는 잠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쏠려 있다. 아침 등원부터 하원까지 교사는 아이들과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가 화장실을 갈 때에도 “잠깐 앉아 있자.”, “잠깐 책보고 있자”라는 말을 남기고 “빨리 교실로 돌아가야지. 사고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도 떨쳐내지 못한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하원 한 후 교사는 내일 아이들이 놀이 할 활동을 준비한다. 활동을 준비 했다는 기록도 남겨야한다. 청소를 해야하고 청소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한다. 한 시도 눈을 떼지 않은 덕분에 아이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하원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냈다는 기록을 해야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개별적

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모든 일을 하고 나면 시간은 오후 9시가 돼서야 퇴근을 한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 주와 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집에 돌아가 지난 달에 했던, 더 이상 결재를 미룰 수 없는 행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시가 넘어서 잠을 청한다. 알람은 2분 단위로 10개를 맞추고 행여 늦잠을 잘까 걱정하며 잠이 든다. 자고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 교실에 들어가면 아침에 구겨졌던 인상을 펴고 아이들을 맞이한다.

## CCTV의무화가 된 아동학대의 사례

### -인천 김치싸대기 교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

2015년 1월 8일 김치를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만 2세 아동의 뺨을 때린 한 보육교사의 CCTV 영상이 뉴스와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보육교사의 인성논란과 관련해서 자격기준강화, 인성검사 등의 해결방법이 거론되었고, 보육교사는 인성이 덜 된 사람들. 사회적 루저들이 최후의 보루로 쉽게 자격증을 획득하여 일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닌 직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댓글에는 입에 담지 못 할 말들로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욕하기 시작했고, “클럽가면- 다 보육교사다.”라는 성적 희롱이 되는, 여성이 많은 직업 특성과 합쳐지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대중들이 관심있어하는 여성혐오와 남성혐오의 프레임이 보육교사에게 씌어져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죽여야한다.”와 같은 사회 인식이 생겨나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분노로 가득찬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마음껏 욕하고 모욕할 수 있는 사회적 감정 쓰레기통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 이후로 여전히 미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한다는 직업적 프레임은 사건이 끝난지 4년이 지난 2018년 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당시, 대중들은 교사를 감시하고 싶어했고, CCTV의무화에 대한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여론에 발맞춰 서둘러 국회에서는 CCTV의무화 법안을 마련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에는 각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었다.

## CCTV실시간 열람에 대한 국민청원과 토론

2018년 현재, CCTV의무 설치를 넘어서 이제 사회는 실시간으로 교사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싶어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CCTV실시간 열람]과 관련한 청원이 50건 이상 올라와 있다. TV프로에서는 CCTV실시간 열람과 관련 찬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실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실시간 열람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CCTV의 양면성

CCTV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5대 강력범죄는 26.6%감소했다.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2015) CCTV로 해결한 범죄건수는 3년 만에 20배 증가했고(경찰청, 2017), 서울 시민의 88% 지하철 내 CCTV설치에 찬성했다.(서울시 등 3곳, 2012)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범죄예방용 CCTV를 더 설치해야한다고 응답했다.(한국갤럽, 2013) 이런 통계를 보면 사회는 CCTV는 분명 범죄의 예방도구로서 CCTV의 순기능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CCTV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한 회사는 직원들을 CCTV로 지켜보고 대화를 엿듣는 사건이 있었고(YTN. [단독] "CCTV로 지켜보고 대화 엿듣고..." 타이어뱅크 직원 감시 논란2018,) 경찰은 교통용 CCTV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감시했다.(2018)

CCTV를 이야기 할 때 늘 등장하는 키워드는 [안전]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를 필요를 말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도 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의 필요를 주장하는 사회는 영유아의 안전과 권익을 이야기 한다. 영유아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CCTV는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에 순응해야한다. 하지만 CCTV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 CCTV 실시간 열람논의에 앞서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의 순기능을 하는지. 사생활 침해의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정말. CCTV는 영유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을까?

### **CCTV는 아동학대 예방에 영향이 있었는가**

CCTV 설치 후에는 사람들은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장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에 [아동학대]키워드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보일 정도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장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은 CCTV가 설치 된 2014년 이후. 10,027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년 만인 2016년에 18,7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16년, KOSIS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 아동학대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CCTV가 예방이 아닌 처벌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보고된 아동학대 중 그 비율을 살펴보자면 이 중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전체의 3.2%이고 가정 내의 학대가 80.4%다. 아동학대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검색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대부분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석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통계에서는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를 하는 기관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는 감정의 배출구로 [어린이집=아동학대를 하는 곳],[보육교사=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 통계청〉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15,032	(80.4)
	학대행위자 가정내	339	(1.8)
소계		15,371	(82.2)
집근처 또는 길가		353	(1.9)
친척집		150	(0.8)
이웃집		20	(0.1)
어린이집		601	(3.2)
유치원		247	(1.3)
학교		609	(3.3)
학원		159	(0.9)
병원		68	(0.4)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287	(1.5)
	기타복지시설	24	(0.1)
소계		311	(1.7)
숙박업소		90	(0.5)
종교시설		61	(0.3)
기타**		644	(3.4)
파악 안 됨		16	(0.1)
<b>계</b>		<b>18,700</b>	<b>(100.0)</b>

전국에 어린이집, 유치원교사를 모두 합치면 약 384,025명이다.(2017 보육 통계, 2018 교육통계) 그리고 2017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48건(명)이다.(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 통계청) 전체 교사의 0.25%에 해당하는 수치다. 0.25%의 비율을 통해 우리사회는 [어린이집=아동학대기관 따라서 CCTV의무 설치 해야한다.]라는 논리를 성립시켰다.

#### 아동학대 해결로 제시 된 CCTV 그 효과는?

CCTV를 통해 사회가 아이들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은 강한 처벌일까. 확실한 예방일까. CCTV는 확실히 처벌을 위한 증거로서의 기능은 확실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원하는 것이 학대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라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많은 대중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가 시작 된 지 3년. CCTV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3%를 100%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정작 중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비율인 80%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어린이집의 CCTV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하는 속임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눈으로 보여주어 믿게 하고, 결국 진짜 중요한 진실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드는 사기꾼의 서류같이 CCTV는 오늘도 3%의 자극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 자극적인 모습에 속아 사회는 아동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 할 80%의 가정 내 아동학대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 3%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만을 줄이기 위해 CCTV실시간 열람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CCTV가 아동학대예방에 효과적이었는지. 당사자인 교사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채 이 역시 논의 되고 있다.

### **CCTV는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현재 아동들이 잘못했을 때 교사들이 대처할 수 있는 [훈육메뉴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리 전문적 지식을 배운 교사들이라고 해도 가정에서 하는 훈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엄마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모습은 어떻게 보아도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다그치는 모습은 어떻게 봐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CCTV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의 교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담아내지 못한다. 결국, CCTV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매정한 모습을 감정없이 담아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기 독수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

야만 하는 행동들이 있다. 울며 떼쓰는 아이에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이다. 가정에서처럼. 하지만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본다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어떨 때에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강하게 누르기도 해야하고, 달래기도 해야한다. 아동학대가 심각성이 대두된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혼이나고, 달래지기도 하며 어른이 되었다. 이 장면들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해서 방송을 한다면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모습은 모두 아동학대 예방 비디오가 될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사회는 아직 받아들일만큼 성숙하지 않다.

CCTV설치 후 교사는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 지도를 꺼려하며 훈육을 위해서든 아이들과의 놀이를 위해서든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것에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권정윤, 송나리. 어린이집 CCTV 의무화로 인한 유아 문제행동 지도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 유아교육연구.) 이는 CCTV가 교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과 같다. 교사가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요구해도 안아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CCTV는 아이들로부터 엄할 땐 엄하지만, 따뜻할 땐 웃으며 안아주는 선생님을 빼앗아 갔다. CCTV의 역기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실시간 열람을 가능하게 하면 아동학대가 줄어들까? 이 역시 처벌을 강화하는 기능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사회에 기대와는 달리 CCTV설치 의무화 이후 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았는지 이제는 고민해봐야 한다. 처벌강도를 올려도, 실형을 선고받는 교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찾아봐야 할 때이다.

한 tv프로에서 [어린이집 CCTV실시간 열람] 찬반토론이 이뤄졌다. 그 중 방송인인 한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육아는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이다. 어린이집 CCTV가 실시간 열람이 된다면 열심히 볼 것 같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될 것 같다. 육아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감시를 받으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선생님의 사랑을 방해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 육아 프로그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집에 카메라가 설치되면 아무리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행동이 나타난다. 카메라로 인해 즐거운 육아가 스트레스가 된다. 방송인인 나도 카메라가 돌면 어색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선생님들은 더 할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을 감시하면 평소와는 달리 어색한 행동을 하게된다. 평소에 잘 하던것도 평가를 받는 자리면 몇 배씩 긴장이 되는 이유와 같을 것이다. 교사도 사람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 없다. CCTV설치 의무화가 논의되던 때 댓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떴떴하면 감출 것이 없다.”내가 아무리 떴떴해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이걸 교사가 부끄러운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불편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이 본성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발동시킨다. 그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교사를 소극적으로 만든다. 아이들과 지낼 때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사가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의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초등학교에서 지식전달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각 수업마다 아이들이 꼭 습득해야할 ‘지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습득해야할 지식대신에 경험이 활동목표로 기술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의 취학 대상인 만 5세 미만의 아동들은 발달단계상 성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기이다. 아동들에게 어린이집

교사는 가족을 제외한 첫 타인인 셈이다. 아동들은 교사의 표정과 말, 행동을 보고 감정을 배운다. 하지만 CCTV의무화로 인해 소극적인 교사들로부터 아동들은 타인의 감정을 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사는 아이에 행동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해야 하지만 CCTV로 인해 경직된 교사는 아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다.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CCTV 설치 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늘어났다. 그 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CCTV설치의 목적은 학대자의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했지만 처벌에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 중 유치원 어린이집(384.025명)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 3%에 불과하다. 전체 교사 중 1091명(건)이면 교사의 비율만 봐도 0.2%가 조금 넘을 뿐이다. 물론 아동학대를 한 교사를 강하게 처벌해야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0.2%의 아동학대 교사를 처벌하고자 99.8%의 교사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할 수도 있다. “단 한 명의 아이가 학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CCTV설치는 정당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CCTV로 인해 얻은 것은 아동학대를 한 교사에 대한 처벌과 교사를 불신하고, 감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얻었다. 하지만 우리는 잃은 것도 헤아려 봐야한다. 아이들은 교사를 잃었다. 0.2%의 교사를 잡고있는 CCTV는 아이들의 선생님을 없앴다. 감정이 있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 선생님을 잃었다. 교사는 CCTV앞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지 않는다. 아이의 귀여운 행동에 배꼽을 잡고 쓰러져 웃으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따뜻한 선생님을 잃었다. 우리 사회는 CCTV를 통해서 그런 선생님들을 잃었다.

이제 CCTV의무화를 넘어 사회는 CCTV 실시간 열람을 논의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불신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CCTV 실시간 열람이 아동학대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을까?

2014년 CCTV 의무화 이전인 2012년에 이미 CCTV를 설치하고 10시-12시까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방송하던 원이 있었다. 그 곳에서 근무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처음 그 원에 들어갔을 때가 2012년이었어요. 당시에 만 2세 영아반 담임이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10시-12시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걸려고 하니깐 조용히 경력 선생님이 다가와 말해줬어요. “우리 원은 10시에서 12시까지 집 TV로 교실을 볼 수 있어. 게다가 소리까지 방송돼. 10시에서 12시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는게 좋아” 그곳에 교사들은 정말 방송이 되는 시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만 말 없이 도움만 줬어요.

해당 원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작용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 과연 CCTV 실시간 열람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조치였을까? CCTV 의무화가 되고 나서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CCTV 실시간 열람이후에도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는 누가 감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 교사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촬영해서 볼 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TV안에서 교사의 행동은 다소 과격한 것처럼 보여진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그 환경 속에서 볼 때와 녹화된 영상을 TV로 볼 때 느껴지는 감

정은 상당히 다르다. 책 읽어 달라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 아이가 안아달라고 달려들 때 그 아이를 뒤로 하고 넘어져 있는 아이를 먼저 안아주는 모습은 매정해 보인다. 학부모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학부모 자신도 자신이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본다면 매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들 중 하나이다. 울면서 물건을 집어 던질 때 아이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영상은 이런 훈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영상으로 교사의 행동을 본다면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신도 분명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TV속에 교사의 모습은 공감하기 어렵다. 때문에 모르는게 약일 때도 있는 것이다. CCTV 실시간 열람이 가능해지면 아이들은 더더욱 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게 없어진다.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것만해도 교사들은 경직되어 있는데 실시간 방송이 되고 학부모로부터 실시간으로 전화 몇 통 받고 나면 교사는 더더욱 경직될 것이다. 더욱 감정과 표정을 감출 것이고 로봇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한 연구에서 고아에게 음식과 따뜻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상호작용대상만 없앤 사례가 있었다. 그 아이는 물리적 환경으로는 완벽하게 갖춰진 곳에서 자랐지만 자폐성향을 띄게 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아이들에게 물리적 환경만큼 인적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인적환경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말한다. 아이가 말을 걸면 웃어주고, 울어주고, 걱정해주고, 바른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CCTV는 교사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CCTV는 아이들을 교사로 하여금 자폐로 만들도록 강요하는 장치이다. 실시간 열람은 이를 가속화 시킬 뿐이다. 아이를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학부모를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예방으로서의 기능도 CCTV는 가지고 있지 않다. 0.2%의 교사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99.8%의 교사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 교사들로 인한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0.2%의 교사들은 왜 아동학대를 하는 것일까?

실제로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뉴스를 통해 공개되었을 때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원래]아이를 저 정도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폭력전과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테니까. 하지만 경찰의 조사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들은 폭력전과가 없는 사람들이다. 20년 넘게 폭력전과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 아동학대를 하고 난 후 전과자가 되었다. 전과가 없던 사람이 교사가 된 후 폭력 전과자가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몬테소리가 살아돌아와도 한국의 어린이집에서 좋은 교사로 살아남기는 어렵다.” 보통 사람은 분노를 느낀다. 이걸 당연한 전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분노를 느낀다고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무분별하게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인데, 문제는 이 자기 조절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피곤하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낸다. 이 또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점이다. 학부모도 평소에 아이들이 칭얼거리면 웃으며 받아 줄 수 있지만 매일 야근에 감기까지 걸린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평소에 웃으면서 받아주던 아이들의 칭얼거림을 웃으며 받아줄 수 없게 되는 날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무리 일관된 양육태도를 유지하려고 해도 몸 상태에 따라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아이가 적긴 해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는 한 명의 아이도 일관적으로 대하기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교사는 다르다. 자격기준에 따라 교사를 준비한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학부모보다는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안다. 또 원내에는 다양

한 놀잇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히 가정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것보다는 수월하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본다 해도 교사의 손이 두 개인 물리적 한계점을 기술로 커버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그것이다. 만 2세의 경우 교사 1명이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9명의 아이들을 보육한다. 아무리 동화책을 잘 읽어주어도 과도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국의 교사들은 어느 정도 극복해냈다. 몸 컨디션만 괜찮다면 교사 혼자서 힘들긴해도 7명의 아이들을 보육할 수는 있다. 문제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다. 생리를 하거나 잠을 잘 못갔거나 감기에 걸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도 몸을 최대한 활용해서 간신히 보육하던 아이들인데 교사의 컨디션이 안좋아졌다고 그에 맞춰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거나 평소보다 조용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럴 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평소에는 조곤 조곤하게 이야기 하던 것들도 큰 소리를 치게 된다. 그만큼 교사의 몸 상태는 물리적 환경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원장님들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 “교사는 자기 몸 관리 까지가 업무의 연장이야”라고. 교사들이 스스로 전날 과음한 탓에 아이들을 돌볼 몸 상태가 아니었다면 교사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이 정도는 인정 하고 있다. 때문에 평일에는 약속을 피하고 귀가를 선택하곤 한다. 평일에 약속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교사들의 컨디션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

모든 교사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과도한 업무량이다. 교사는 업무시간 내내 아이들을 위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쉬지 않는다. 설 수가 없다. 일반 직장인들이 흔히 갖는 동료와의 수다. 점심시간. 티타임은 상상할수도 없다. 아이들이 돌아가면 교사의 진짜 업무가 시작된다. 이미 교사는 9시부터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해 6시까지 업무를 끝마쳤다. 하지만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각 종 서류들을 해야한다.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학부모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코멘트가 달리면 댓글도 달아줘야 한다. 그 뿐 아니라 5월처럼 행사가 많은 달이면 아이들을 돌보고, 모든 서류를 다하

고, 행사 준비도 해야한다. 그렇게 교사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9시가 훌쩍넘는다. 물론 너무 힘든날은 서류 업무는 뒤로 미루기도 한다. 그리고 주말에가서 미뤘던 업무들을 처리한다. 그리고 다시 출근해 아이들과 일과를 시작한다. 교사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업무 숙련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밤 10시 이전에는 퇴근하기가 어렵다. 이 말은 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업무가 근로시간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정규 업무시간 동안 절대로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이다. 실제로 한 교사 커뮤니티의 통계에 따르면 교사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주 59.4시간으로 집계되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원에 9시에 들어가면 밤 9시에 나온다. 그리고 집에와서 다음 날 또 9시에 원으로 출근한다. 교사의 컨디션을 좋을 리가 없다. 아동학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위이지만 처벌을 강화하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왜 20년 넘게 폭력전과가 없던 사람이 교사가 되면 폭력을 저지르는지. 부모가 피곤할 때 아이들에게 예민하게 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에게 주어진 업무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직업환경의 문제인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어떤 업무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국의 보육은 반대가 되었다. 교사들은 서류를 하느라 아이들을 멀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류를 하느라 몸이 피곤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서류업무들이라고 해도 이것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서류를 없애는게 맞지 않을까? 교사가 부모 참여수업을 준비하느라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나와서 행사 준비를 하고, 밤 늦게 까지 야근을 해서 다음 날 피곤한 몸 상태로 아이들을 맞이해야 한다면 행사를 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권이다. 교사들도 일부 동의한다. 각종 서류와 행사가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서류와 행사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의 인권보다 중요

한 것은 없으니 말이다. 99.8%의 교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보다 아이들을 돌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는데 동의한다. 아동학대를 한 교사에게 강한 처벌을 하는 것도 한 강하게 동의한다. 하지만 교사가 왜 아이들을 학대하는 실수를 자꾸 범하는지, CCTV가 설치되어도 교사는 왜 화를 참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국 아이들의 인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의 건강이다. 물리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CCTV가 설치되면서 아동학대 비율을 오히려 늘어났다. 교사는 “아이를 때려야지” 생각하고 때리는게 사람이 아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서있는 사람만큼이나 극한에 상황에 처해 있는 교사의 정신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CCTV는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아이들을 보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빼앗아갔다. 아이들에게서는 감정이 있는 선생님들을 빼앗아갔다.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동학대를 부추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99.8%의 교사들마저도 아동학대를 하도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결론

아이가 물건을 모두 집어던지고 있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하게 아이의 손목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아이가 교사의 뺨을 때릴 때 엄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가 교실에서 친구들을 때리면 원장님 방에서 진정을 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사가 선택해야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맥락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의 용어로 학대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과도한 행동을 했을 때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일까?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아동학대 규정은 있지만 [훈육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CCTV를 보는 학부모에게 담당할 수 없다. 아이의 행동을 저지했을 때 학부모가 “왜 그렇게 했어요?” 묻는다면 교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라고 말 끝을 흐릴 뿐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올바른 양육방법은 나와있지만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 방법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교사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교사의 경험과 자의적인 판단 속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며 사회의 불신과 학부모의 감시 속에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해서 안 먹이면 방임이 된다. 그래서 밥을 계속 권해서 아이가 운다면 그건 정서학대가 된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훈육 매뉴얼이 연구된다면 교사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기반 속에 사회가 교사의 고충과 아이들의 상황을 헤아려 교사가 아이들에게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아동학대는 줄어들 것이다. CCTV 설치/실시간 열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그 수많은 서류들을 극단적으로 원내에서 없애버린다면 아동학대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 [공론장③]

영유아 교사는 퇴근안해요?

이세리

# 영유아교사<sup>1)</sup>는 퇴근안해요?

이세리

휴게시간이라 쓰고 업무시간이라 읽는다.(영유아교사의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감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2014)

2018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교사들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받게 되었다.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은 알 것이다. 오전 내내 아이와 씨름을 하고 독박육아로 지쳐있을 때 낮잠을 자는 아이를 눕혀놓고 한 시간정도 쉰 후에 다시 아이를 본다면 오후에 훨씬 더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들은 하루 종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과 생활한다. 영유아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기만 한다면 야 오후시간에 더욱 즐겁게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휴게시간은 단순히 영유아교사만 쉬는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유아교사들이 휴게시

1) 영유아교사(우리나라의 0세~7세시기의 영아 및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 영유아교사는 교육부에서 자격증을 주고 관리하는 유치원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주고 관리하는 보육교사로 이원화 되어 있으나 하는 일과 처우가 비슷하여 이 책에서는 영유아교사로 통칭하고 나눠서 써야할 때만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어야하는 영유아교사들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휴게시간어디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교사 자음	20	4.2	4.2	4.2
	교사실	119	25.3	25.3	29.5
	교실	212	45.0	45.0	74.5
	외출	41	8.7	8.7	83.2
	원 내에 있는 휴게장소	67	14.2	14.2	97.5
	휴게시간 없음	12	2.5	2.5	100.0
	합계	471	100.0	100.0	

휴게시간무엇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개인 업무 처리(은행, 병원, 등사무소 등)를 한다.	23	4.9	4.9	4.9
	교사 자음휴식	139	29.5	29.5	34.4
	밀린 업무	263	55.8	55.8	90.2
	실질적 휴게시간 박탈	26	5.5	5.5	95.8
	집단휴식	18	3.8	3.8	99.6
	휴게시간 없음	2	.4	.4	100.0
	합계	471	100.0	100.0	

2018년 7월 초, 원장님은 낮잠시간에 교사들을 불러 모았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회의주제였다. 원장님도, 교사들도 답을 찾지 못했다. 교사의 업무는 그대로 인데 갑자기 휴게시간을 사용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5분씩, 10분씩 나누어서 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겠다는 결론이었다.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니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가짜서류도 필요했다. 매일 쓰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기

록하고 서명을 하는 가짜 서류다. 정말 일이 있을 때 (일 년에 눈치 봐서 한 두 번) 대체교사나 보조교사에게 부탁하고 잠시 나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2018년 7월에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가 되고 두 달이 지난 9월, 영유아교사들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영유아교사들과 휴게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번에 점검하러 나온다고 그래서 지하식당에 소파를 들여놓긴 했어요. 교사들 쉬라고요. 그런데 쉬지 못하죠. 낮잠시간에 쉬어야하는데 아이들 두고 지하식당에 가기에는 불안해서...”

“원 밖으로 나가서 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이번 점검을 통해 유치원처럼 아이들이 3시에 가고 그 이후에 남는 아이들은 종일반 교사를 채용해서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교사가 잠시라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 때 불안해서 원안에서 휴게시간을 갖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교실로 가야해서 교실 가까이에서 쉬고 있어요.”

“저는 그나마 휴게시간이 생겨서 원장님 눈치 안보고 낮잠시간에 보육일지라도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저희 원은 교사가 부족해서 30분씩 돌아가면서 휴게하고 있어요. 휴게시간에 수업준비하거나 활동자료준비하거나 일지를 쓰거나 하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시간이 길지 않으니 일할 준비하면 30분이 금방 지나가요. 한 시간이 휴게시간이면 그 시간에 일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저는 휴게시간 의무화된 첫 날 원장님이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나갔다가 10분 만에 원장님 전화 받고 어린이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반 아이가 낮잠 깨서 운다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안 쉬는 게 낫죠.”

“휴게시간이 의무화돼서 일만 하나 더 늘었죠. 휴게시간 기록하는 서류를 만들었거든요.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휴게시간을 가짜로 적어요.”

대부분의 영유아교사들은 휴게시간에 행정업무 및 밀린 업무를 하고 있었다. 영유아교사들에겐 휴게시간이 생소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휴게시간에 눈치안보고 보육 일지를 작성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사도 있었다. 또 휴게시간에 아이들이 깨거나 울까봐 교실을 떠나지 못하고 쉬고 있다는 교사도 있었는데 그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속한다. 실제로 교사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어떤 어린이집은 휴게시간을 기록하는 휴게시간 기록표가 있는데 실제로 휴게시간을 쓰지 못했지만 가짜로 휴게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원장님의 눈치가 보여 휴게시간을 자진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곳도 있었다. 또한 업무량은 줄지 않고 휴게시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야근을 더하게 되었다는 곳도 있었다. 위 사례들을 보면 보육교사로서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낮잠시간이 없는 유아반이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보조교사가 배치되더라도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고 보조교사가 투입되어 교사가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애착형성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 없는 시간에 안전사고나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근무시간동안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 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교사의 노력이 필요 하는 영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차라리 초등학교교사처럼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퇴근시간을 한 시간 일찍 앞당기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교사는 행복하고 아이들은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 어린이집의 점심시간(12시~1시) 풍경

- 오후 12시.

교사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책상을 옮기고 아이들이 앉도록 지도한다. 교사가 점심을 가져와 아이들의 식판에 배식을 시작한다. “선생님, 고기 더 주세요.” 배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점심을 먹기 시작한 아이가 고기를 더 달라고 한다. 교사는 반찬을 더 달라는 친구에게 반찬을 더 주고 배식을 다 끝내고 교사의 식판에 점심을 덜어본다. 막 한 숟가락 뜨려는 그때, “선생님, 밥 더 주세요.”, “선생님, 흘렸어요. 닦아주세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계속 부른다.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겨우 점심을 먹기 시작한다. 그때, 또 들려오는 소리, “선생님, 똥마려워요.” 잠시 뒤, “다 썼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으면 교사는 점심을 먹을 정신이 없지만 아이들과의 오후를 버티기 위해 겨우 국에 말아 후루룩 입에 밥을 털어 넣고는 잔반 정리를 시작한다.

- 오후 12시30분

책상과 바닥에는 아이들이 먹으면서 흘린 음식들이 잔뜩 있다. 잔반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바닥에 음식을 흘린 것을 정리한다. 점심을 다 먹은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한다. 그러는 동안 교사는 아이들에게 양치지도를 한다. 몇 명의 아이들이 양치를 하는 동안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지 계속

교실을 주시하며 양치지도를 한다.

- 오후 12시 45분

양치를 모두 끝낸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으면 정리를 하고 이불을 꺼내며 교실에 깔아주며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며 낮잠준비를 시작한다.

- 오후 1시

낮잠준비가 끝나면 아이들을 재운다. 30분후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알림장을 작성한다. 뒤척이는 아이, 자다 깨서 우는 아이 등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알림장을 작성하고 밀린 업무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12시부터 1시까지의 시간을 영유아교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는다. 점심을 먹은 후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잔을 테이트아웃해서 마시며 잠시 햇볕을 쬐기도 한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영유아교사에게 점심시간이란 가장 바쁜 업무시간이다.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고 점심을 먹이고 양치를 시키는 등 단순히 점심을 먹는 시간이 아닌 기본생활습관지도시간이다. 점심을 먹다가도 아이들이 흘리면 닦아주러 가야 하고 먹여주거나 치워줘야 하기 때문에 점심을 거르거나 대충 먹는 날이 많아 커피한잔이나 휴식은커녕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기 어려운 환경이다. 낮잠시간이나 통합보육시간에는 행정업무 등 보육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써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고 쓰고 업무시간으로 읽고 업무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무시간 + 휴게시간(근무시간) 8시간이 한 시간을 더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야근을 하지 않고 칼퇴를 하는 날의 경우다.)

## 영유아(보육)교사의 업무 (아이들도 다 갔는데 왜 퇴근안하세요?)

오전 9시에서 9시반사이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등원을 한다. 엄마 손을 잡고 등원하는 우리반 아이들을 맞이하며 아이 엄마와도 인사를 나눈다. 아이의 엄마는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이야기한다. “선생님! 어젯밤에 산책하다가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면 아이들도 다 갔는데 왜 퇴근안하셨어요?” 내가 일이 많아 야근을 했다고 하니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이와 엄마는 헤어졌다.

“아이들도 다 갔는데 왜 퇴근 안하세요?” 학부모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하원하면 보육교사도 퇴근을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은행 문 닫았는데 왜 은행직원은 퇴근을 안 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아이들이 하원하면 그제야 본격적인 업무 시작이다.

영유아교사는 왜 아이들이 모두 하원했는데도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출근을 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교사의 경우 아이들과의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야 교사의 행정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후에도 교사는 퇴근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업무에 대해 소개하려한다. 영유아교사의 업무에는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보육(교육)업무가 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자신의 반 아이들과 함께 한다. 아이들과 같이 여러 활동을 하고 점심지도, 낮잠지도, 기본생활습관지도 등 다양한 보육(교육)활동을 한다. 이 시간동안 보육교사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아이들과 있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 아이들에게 눈을 땄 수 없다. 또한 아이들의 발달단계는 어떤지 놀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도록 상호작용해준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시간이 지나면 개인 업무를 시작해야한다. 아이들과의 활동을 평가해야하고 다음활동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를 반영하도록 준비한다. 그런 평가를 쓰는 일지를 비롯하여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행정 업무를 해야 한다. 또 내일 아이들과의 시간을 위해 수업준비(활동준비)도 해야 한다.

일지 같은 서류를 하는 행정업무, 활동을 준비하는 보육(교육)준비업무, 교실 청소 및 환경구성, 학부모관리 등이 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지도해야하기 때문에 보육업무 외 나머지 업무들은 아이들이 있을 때 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어 교사가 보육업무 외 나머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낮잠시간에 하거나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머지 업무시간이 보통 3시간정도 필요하다고 치면 보육업무를 5~6시간을 하고 그 외 업무를 3시간을 해야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이들이 저녁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있다. 당연히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일 야근을 하니 교사는 매일 피곤하고 그 피곤은 다음날 아이들과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처우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아이들이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줄일 수는 없다. 아이들을 위한 활동준비시간도 줄일 수 없다. 보육(교육)업무 외 나머지 업무를 줄여야한다. 서류간소화가 필요하다.

**더하기는 있는데 빼기는 없다!**

영유아교사들의 업무 중 서류를 간소화하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하지만 서류는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계속 추가되고 있다. 더하기는 있는데 빼기는 없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이다. 미세먼지의 관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면 실외활동을 자제하면 된다. 하지만 원장님은 서류를 하나 추가시켰다. 교사는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미세먼지수치를 기록하고 매일 실외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서류를 만들었다. 줄어든 업무 없이 새로운 업무가 더해진 것이다.

“선생님! 미세먼지서류 양식을 좀 고쳐야겠어. 내가 오늘 연합회에 다녀왔는데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서류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장님은 어린이집원장연합회 모임에 다녀온 뒤 새로운 서류 양식을 가져왔다. 교사가 만든 서류와 페이지 방향이 조금 다르고 표의 위치가 약간 달라진 똑같이 미세먼지의 수치를 기록하고 실외활동여부를 기록하는 서류였다. 원장님이 새로 가져온 양식대로 다시 서류를 만들고 그동안 기록했던 미세먼지 수치와 실외활동여부를 새로 만든 양식에 다시 기록했다. 그 이후로도 미세먼지서류는 몇 번 더 바뀌었다. 똑같은 내용을 적는 그 서류 말이다. 그때마다 지난 기록을 다시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동관련 사항에는 항상 서류와 새로운 업무가 더해진다. 얼마 전 경주·포항에 지진이 발생하자 급하게 안전교육이 추가되었다. 아이들과 지진관련 안전교육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급하게 안전교육계획안을 만들고 안전 교육 자료를 만들고 지진대피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평가서를 만들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구청에서 교사들을 부르고 긴급교사교육을 진행한다. 교사들이 매년 들어야하는 교사교육으로 이미 들은 내용을 다시 듣고 교사연수 서류를 또 만들어야한다.



휴게시간서류도 마찬가지다. 휴게시간보장이 의무화되니 휴게시간을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서류가 더해진다. 휴게시간을 가지라더니 업무가 더해진 셈이다. 이런 서류들은 같은 내용인데도 양식이 계속 바뀌고 교사의 업무는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 어쩌면 곱하기도 있는지도 모른다. 계속되는 더하기로 인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서류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

### **일요일이 기대되는 이유?**

“이번 주말에는 밀린 서류 해야지.”, “이번 연휴에는 일해야겠다.”, “이번 명절에는 서류 다 끝내서 출근해야지.” 영유아교사들은 일요일을 기다린다. 연휴랑 명절도 기다린다. 영유아교사들이 일요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쉬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밀린 서류업무를 아이들의 방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영유아교사들에게 쉬는 날은 밀린 일을 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금요일에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퇴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게을러서, 근무시간에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업무이고 아이들은 근무시간 내내 함께 있다. 오늘도 우리는 주말을 기다리고 있다. 서류업무를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기 위해...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가?**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 사실 평가인증제도 자체는 부모들, 교사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평가인증은 원마다 3년에 한 번씩 받아야하는데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에게는 평가인증결과가 어린이집선택에 조건이 되기도 하다. 또 평가인증 덕분에 교사의 근무환경도 점검받아 나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하는 연도에 보육교사들이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올해 평가인증을 한다고 하면 꺼리기도 한다. 평가인증기간이 다가오면 보육교사들은 야근은 기본이고 어린이집에서 합숙을 하기도 한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여간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어린이집평가인증. 이 평가인증제도는 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총 4가지 영역, 21개 지표, 79개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 항목들은 이미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으므로 평상시 잘 운영하면 평가인증기간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어려운 이유는 그 평가항목들을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만 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이미 작성하고 있는 서류로 충분한데 혹시나 하는 노파심 때문에 새로운 양식을 가져온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새로운 서류양식에 3월부터 다시 기록한다. 교사들이 거의 밤을 새어가며 새로운 양식에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나도 계속 새로운 양식을 가져온다. 그 양식은 사실 같은 내용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의 차이인데도 어떤 원이 이 서류 양식으로 평가인증 A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 서류 양식으로 바꿔야하는 것이다. 계속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기도 어렵다. 사실 평가인증의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평가인증제도가 개선되어 서류가 좀 더 간소화되거나 평가항목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원장님들이 그것들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느라 야근을 하여 아이들의 보육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엄마, 이번에도 못 오지?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을 만났다. 함께 일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런 저런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벌써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돌잔치 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초등학생이라니 하며 시간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입학식은 갈 수 있냐고 물었다. “당연히 못가지. 우리반애들 입학식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유치원입학식이랑 졸업식도 못 갔는데 뭐, 평소에도 연월차를 못 쓰는데 졸업, 입학시즌에 어떻게 쓰겠어.”

과거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는 많이 좋아졌다. 연·월차는 꿈도 못 꾸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원장님의 눈치를 보가며 대체교사를 신청하면 가끔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하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사용하기 어렵다. 부모참여수업이나 학부모 상담 등도 참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7살 아들을 둔 영유아 교사가 있었다. 교사 일을 한지 10년 만에 휴직을 하였다. 휴직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아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수업을 한다는 가정통신문이 왔다. 그 교사는 처음으로 아들의 부모참여수업을 위해 아들의 어린이집에 다녀왔다. 처음으로 참여한 부모참여수업에서 아들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았다. 아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아들의 담임선생님과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다. 영유아교사로 일을 하면서 아들을 0세 때부터 7년을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모참여수업이 아닌 부모로 참여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영유아교사들은 열심히 부모참여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지만 정작 내 아이의 부모참여수업에는 참석할 수 없다.

## 대체교사는 하늘의 별따기

대체교사제도가 있지만 대체교사를 신청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어떤 보육교사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당장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다며 일단 출근하라는 원장님의 이야기에 아픈 허리를 이끌고 출근을 했다. 아픈 채로 아이들을 돌보기에 힘이 든 하루였다. 원장님께 상황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대체교사를 구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해보았다. 대체교사들은 이미 다른 원으로 출근했기에 당장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며칠 뒤 대체교사가 오고 그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여름, 겨울 휴가시즌마다 만나는 불편한 동의서

영유아교사는 아이들이 등원을 하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독감이나 감염병에 걸려도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교사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체교사를 지원해주기 위해 대체교사지원제도가 있다. 대체교사제도는 보육교사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혼 등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 보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아직 유치원은 이런 제도가 없다.) 미리 신청하면 그 기간에 대체교사가 그 교사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대체교사를 신청한 보육교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교사의 인원이 부족하여 휴가기간에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매년 여름, 겨울 휴가시즌이 되면 보육교사들도 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한다. 그 기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보육교사도 불편한 동의서가 오고 간다. '가정학습기간 동의서'(명칭은 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여

름·겨울 휴가 기간 동안 아이를 맞기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묻는 동의서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그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럼 교사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에 체크를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육교사들도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며 동의서를 보내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동의에 체크를 해서 보내면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보육교사들도 휴가를 가야하고 또 그 보육교사가 한 아이의 엄마인 경우 그 아이도 휴가기간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는 동의에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영혼탈탈퀴즈! 당신의 선택은?**

당신은 어린이집 만1세반 담임교사다. 오전 11시20분,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하고 들어온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다. 당신은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순서대로 나열)

1. A영아가 교구장에 올라가고 있다.
2. 배변훈련중인 B영아는 바지에 쉬를 한 채 서 있다.
3. C영아는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나고 있다.
4. 신입원아인 D영아는 엄마를 부르며 큰소리로 울고 있다.
5. 그때, 늦게 등원한 E영아의 엄마는 담임교사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당신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몇 번을 선택하였는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붕을 겪을 것이다. 웃자고 낸 퀴즈가 아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교사 한 명당 만1세 영아 5명을 보육해야 하는 만1세반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보육교사 1명당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을 보육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거기에 연령별로 1~2명씩 초과해서 보육하는 것이 허용되는 초과보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

령별로 두세 명씩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 한명도 보기 어려운데 혼자서 여러 명의 아이들, 초과보육까지 허용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서류업무까지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아이들과의 활동, 상호작용에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할수록 아이들의 보육의 질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좁은 교실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든 힘들 수밖에 없고 개별교육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특성 상 보육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지고 한 교실에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배치되면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보육환경이 제공되고 교사역시 휴게시간이나 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는 나은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 **선생님! 이번 달도 내 통장으로 부탁해요**

띵동! 이번 달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금액. 들어온 급여로 카드 값과 보험금을 결제하고 지난 달 봐 둔 원피스를 살까, 청바지를 살까 행복한 고민하며 출근했는데, 교실 앞에서 원장님을 만났다. “선생님! 이번 달도 내 계좌로 부탁해요. 입금자명 수정하는 것 알죠?”

벌써 석 달째, 월급의 일부를 원장님께 돌려주고 있다. 석 달 전 원장님은 원이 어려우니 선생님들이 협조를 해줘야한다고 했다. 한 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일찍 퇴근한 만큼의 급여를 돌려달라는 이야기였다. 감사에 걸릴 수도 있으니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달라고도 했다. 처음 원장님은 약속한 퇴근시간에 얼른 퇴근하라고 재촉하였다. 하지만 점점 많은 업무로 인해 퇴근시간은 늦어졌다.

일명페이백! 원장님의 제안대로 실제로 한 시간 일찍 퇴근하고 그만큼의 급여를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업무의 양은 줄지 않았고 그대로다. 아니 행사나 감사가 있다면 업무는 많아졌고 퇴근시간은 오히려 원래 퇴근시간보다도 늦어졌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면 그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고 퇴근하게 된다. 당연히 그 한 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집에 가서 밀린 업무를 해야만 일을 마칠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에서 일부를 돌려주고 업무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페이백을 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많다. 교사들도 불법인줄 알고 페이백을 하고도 업무의 양은 그대로라는 것을 알지만 원장님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영유아교사들은 호봉대로 급여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매년 호봉표가 발표되는데 호봉표대로 급여를 받고 정부에서 주는 수당까지 받는다면 영유아교사의 급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 호봉표대로 급여를 주지 않고 원장님이 임의로 급여를 정해서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만 겨우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페이백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영유아교사들의 하는 일은 같다. 가정어린이집이나 규모가 작은 유치원이라고 해서 일이 적거나 서류가 간소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에 비해 매우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영유아 교사들은 야근을 하고 다음날 웃으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맞이한다.

### 직장에서 휴대폰을 걷는다고?

출근을 하면 휴대폰을 걷는 직장이 얼마나 있을까? 휴대폰을 내야하는 직장이 있다. 군대에 있는 군인? 학교 학생? 교도소의 수감자? 보안회사 직원? 이런 특수한 곳이 아닌 평범한 곳.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휴대폰을 걷는다. 아이들과의 일과에서 휴대폰을 활용하는 방법이 소개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

“휴대폰 사용불가...”

“우리원은 휴대폰을 내는데..”

“원장님이 폰을 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하죠?”

“저희 원은 휴대폰 사용금지입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걷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많이 있다. 원장님이 내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내야하는 분위기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만 일을 하고 회사생활을 안 해봐서 다른 직장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지인들에게 물어봤다. 휴대폰을 걷는 직장이 있냐고.

“아니 안 그렇지. 그런 곳이 있으면 진짜 노답 회사네.”

“휴대폰을 걷는다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왜 휴대폰을 뺐어?”

“당연히 안 걷지. 학교도 아니고 무엇보다 업무폰도 아니고 개인폰이면 더 걸으면 안 되지.”

“휴대폰을 걷는 회사가 어디 있어? 또\*이회사 아니면...”

하지만 많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휴대폰을 걷고 있다. 그 많은 영유아교사들은 노답 직장, 또\*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휴대폰만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걷는 것과 영유아교사의 사물함이나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요즘 휴대폰은 지갑대용이다. 공인인증서도 들어있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도 들어 있다. 휴대폰을 걸었을 때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다. 원장님들이 교사들의 휴대폰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를 못 믿어서? 군기를 잡으려고? 이런 개인 물건을 원장님이 마음대로 걷는 것은 영유아교사의 인권이 침해된 것이 분명하다. 요즘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 같은 기사로 가뜰이나 영유아교사들은 억울하게 의심받고 주눅 들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들까지 영유아교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영유아교사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을까?



## 출산휴가? 육아휴직? 원장님! 그 선생님한테 약점 잡힌 것 있어요?

몇 년 전, 유치원에서 근무했을 때 일이었다. 그 당시 첫째를 임신을 했고 건강 체질이라 원장님이 출산휴가만 주면 임신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태교에 도움이 될 것도 같았었다. 2학기 말이라 이미 다음 학년도의 재직이 결정이 났었고 새 학기 준비를 이미 거의 한 상황이었다. 평소에 원장님과 수다도 떨고 관계가 좋았던 터라 축하를 받을 것을 기대했었다. 원장님께 임신이야기와 출산휴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원장님의 표정은 변하셨고 “임신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요? 퇴사하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새 학기 준비를 이미 하고 새 학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터라 너무 아쉬웠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치원교사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생겼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둘째를 임신했고 첫째 때의 경험 때문에 원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했다. 그냥 먼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었다. 다행히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도 된다고 하시고 만삭까지 근무하는 동안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임신 중 근무를 했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이 출산을 했다. 출산 후 원장님은 병원으로 문병을 와주셨고 원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이집원장연합회의 다른 원장님들이 우리 원장님에게 “원장님, 그 선생님한테 약점 잡힌 것 있어요? 왜 출산휴가 줘요? 그만두게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원장님은 당연히 출산휴가를 줘야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연합회의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우리 원장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영유아 교사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 임신을 하면 당연히 그만둬야하는 분위기라 면접을 볼 때 결혼계획과 임신계획이 입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다.

영유아교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직업... 엄마들이 맘 편히 직장에 다닐 수 있고 그 시간동안 엄마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을 교사들은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사 자신은 자신의 아이들은 돌볼 수 없는 현실이다.

### **아무도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얼마 전 아동학대를 했다고 의심을 받아 맘카페에 신상이 공개되어 보육교사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을 보면 물론 오해로 인해 신상을 공개하고 맘카페에 선동을 한 것이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원장님은 해당교사가 사과하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를 보호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장님마저 교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고 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 일에도 사과를 하게 만들거나 교사가 직접 해결하게 한다. 영유아교사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영유아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행복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루 빨리 생기기를 바란다.



## [공론장④]

영유아교사 직업에 만족하나요?

방 현

# 영유아교사 직업에 만족하나요?

방 현

## 보육교사 in 헬조선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처한 환경은 최근 화두가 되는 아동 학대로 인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소위 ‘그렇게 열악하면 안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계속 해당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은 인맥이나 주위의 교사들과 전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다.

### 1. 보육교사의 선택 이유

먼저 보육교사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실 경영학도를 꿈꾸던 남학생이었다. 하지만 학군을 선택하는 그 순간 19년간 고민해왔던 경영학도가 아닌 다 군에 유아교육과를 적어 제출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유아교육이란 ‘아이들을 좋아하면 되는 직업’ 이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유아교육과로서의 삶. 그리고 보육교사로서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처음 과에 들어가면서 동기들과 선배들과 익숙해지면서 왜 이 과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에게 대한 첫 질문들이었다. 필자처럼 아이들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보육교사에 대해 긴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또한 많았다.

이처럼 꿈을 가지고 4년간 다양한 교육을 연수한다. 만약 당신이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면 듣게 될 내용인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발달, 아동학개론(위 3개는 관련 직종을 택하게 된다면 평생 듣게 될 악마의 교재들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이다.) 등등...

또한 해당 수업을 완료하면 드디어 아이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유치원 교육 실습/어린이집 보육 실습. 그렇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두 가지는 반분되어 있다.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쉽게 말해 유아(우리나라에서는 5~7세를 일컫는다.)만 받느냐 영아(우리나라에서는 0~2세를 일컫는다.)도 포함해서 받느냐 이다.

이는 간단한 차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유아교사 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에 비해 추가적인 수업들이 필요하다.

최근 지하철, 인터넷에서 홍보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몇 달만에 습득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가능하나 유아교사 자격증은 좀 더 까다로운 절차에 있는 것이다.(필자는 유아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 직업의 경중을 따지는 내용이 없음을 밝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필자의 생각에는 해당 실습 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들의 직업 선호도가 많이 변동된다고 생각된다. 영유아들을 직접 경험해보며 교사로서의 역할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관마다 그 경험이 상이하며 교사의 역할 또한 다른 모습일 것임에도 4년 중 가장 영유아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임에는 반론이 없을 것이다.

필자도 실습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아교사의 길을 걸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수업에 지루함을 느끼기에는 모자라지 않은 시간이었

던 것이다. 하지만 4주간의 실습기간. (현재는 6주로 늘어났다고 들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에 필자의 생각이 크게 변화했다.

이 기간은 물론 교사로서의 생활을 느끼기 위한 기간이며, 그 실무 능력을 어깨 넘어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필자에게는 보육교사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며, 교사의 언어 습관, 태도 등이 유아(남자 교사에게는 영아 실습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읽고 있는 독자분이 남성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추가적으로 교사가 얼마나 다재다능해야 하는지 느끼면서 말이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행복했으며 실습 교사로서의 시간은 모자랐다. 실습 교사로서의 시간은 눈치싸움과도 같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알아채느냐, 아이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실습교사에게 많은 애착을 보이는 유아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마치 처음 수학의 정석을 핀 중1 학생과 같은 마음가짐이었을 것이다.

물론 어디서나 지도 교사는 차분하다.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대처 방법, 상호작용이 실습 교사의 마음에 비수로 꽂히며 실습 교사로서의 한 달이 정신없이 끝난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헤어질 때. 이별이라는 개념을 유아들에게 설명하지도 못한 채 아이들의 '안아주기' 선물을 받는 순간. 유아 교사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감정을 아주 조금 이해할 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

## 2. 보육교사에서 경험하는 어려웠던 점

이렇게 1달간의 실습 기간이 끝나고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사 자격증,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이제 학과 내 사람들은 다양한(이

라고 적은 것 치고는 그렇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길을 선택한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취업.
2. 임용고시
3. 대학원 진학.
4. 타 직업 선택

필자도 임용고시를 생각했지만 실습 기관에서의 교사의 한 마디가 기억에 남아 어린이집 취업을 선택하였다.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 보육교사의 첫 걸음은 다양한 난관에 부딪힌다. 영유아들과 함께 오는 학부모님들, 기관 내에서의 다양한 교사들과 원장님, 그리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영유아들. 마지막으로 밖에서는 몰랐던 다양한 서류들까지 넘기 힘든 난관들에 한없이 부딪히지만 사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다.

마치 자격증이라는 여권을 들고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마냥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보육교사 업무는 고단하고 또 고단했다. 실습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유아들의 본모습(성악설은 아니지만 기관 생활을 오래한 유아들은 나보다 경력직이었다.)과 함께 숨겨져 있던 보육교사의 업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관에서 교사로 지내보면 유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언어(신체적인 언어도 포함된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영유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끝나야만 제대로 된 업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고난하게 느껴질 것이다. 필자는 그 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초임 교사의 업무는 쉴 틈 없이 돌아간다. 아니 경력직이 된 이후에도 그렇지만 경력직인 아이들과 기싸움을 벌이고 난 후 아이들과 아쉬운 인사를 하



고(기싸움을 벌였지만 당시 우리 반 유아들은 누구보다 예뻐다.) 교사실로 이동하여 문서업무와 개별업무를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업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퇴근 후 업무시작이라는 점이었다. 교사의 업무는 크게 유아들과 보내는 일상과 문서 및 수업들을 계획, 준비하는 업무로 나뉘어져있다. 이렇게 끊임없는 업무가 교사를 병들게 하고 보육의 질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보육은 계속 되며 교사들은 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아이들 앞에서 구김 없는 웃음을 보이며 말이다.

유아들과 보내는 일상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부터 소개할 이야기들은 필자가 기관에서 경험했던 일들 중 보육교사를 이렇게 고단하다고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매력을 간단하게 안내해보려 한다.

### <보육교사의 힐링 포인트>

기관에 들어온 지 1달이 되었던 시절이다. 제대로 된 업무는커녕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조차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도 파악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이는 초임 교사의 열정과 교사의 의지를 한 풀 꺾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런 암울함을 느끼며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하원이 다가오니 부모님들이 너희들의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있다면 못 알아볼 수 있으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하던 순간.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로 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해맑은 표정으로 나에게 이야기했다. ‘선생님. 그런데 나는 머리가 엄~청 커다래서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도 금방 알아볼걸요?’ 한 달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만 고민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아이와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웃음. 그 웃음을 찾기 위해 이 직업을 선택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다.

###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후 두 번째 난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마 살면서 많이 들어보았지만 가장 답이 없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어린이집에서 2명 이상의 교사가 있는 반에서는 이러한 질문의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A 선생님이 좋아 B 선생님이 좋아?” 유치한 질문인 걸 알면서도 열심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교사가 사랑을 보내는 대상이 유아들이고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힘듦을 위로 받는 과정이기 때문인 듯 하다.

이는 초임 차에 필자가 겪은 일 중 하나인데 필자가 사랑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학기 말 조용히 다가오더니 색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때까지는 사실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고민거리가 되던 아이였기 때문에 무엇인지 고민을 하던 끝에 열어보았더니 삐뚤삐뚤한 글자로 사랑스럽지만 사회를 알고 있는 아이의 한 마디가 적혀있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B 선생님 보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B 선생님한테는 말하지도 보여주지도 마요.’

내가 이 사랑스러운 한 마디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유아의 동심을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아보았다. 하지만 때는 현장학습에서 돌아오던 날 일어났다. 선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했다. ‘이동민(가명)이 선생님보다 내가 좋대!!’ 나는 조용히 동민이가 주었던 편지를 선생님 앞에 보여드렸다. 긴장한 모습이 가득한 아이와 조용히 아이를 부르는 선임 선생님.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나는 아직도 이 편지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도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치한 에피소드 중 하나이다.

보육교사의 유치한 기억들은 그들만이 공유하는 즐거운 직업에서의 행복감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한없이 유치하지만 교사들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 이것이 보육교사를 지탱하는 하나의 지짐대일 것이다.

### 〈첫 번째 졸업식〉

이렇게 초임 시절의 즐거운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덧 졸업식의 시기가 왔다. 사실 선임교사분의 이끌림 앞에 나는 한없이 끌려만 가고 있었고, 아이들과 준비한 울동도 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었다.

드디어 대망의 졸업식 날. 내가 준비한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선사한 후 모든 진행이 끝나가는 즈음.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건네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멀게 느껴지기만 했던 아이들과의 이별이 현실이 되었던 순간이었다.

‘김. 소. 민.’

세 글자를 이야기하는 원장님과 원장님의 손에서 아이의 손으로 건네지는 졸업장. 그리고 나에게 느껴졌던 슬픔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교사들도 아이에 따른 선호도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학기 중에는 드러나지 않다가도 이러한 이별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순간에는 극대화되기 마련인데 나에게서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몇몇 아이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특정 아이들에게는 이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크게 내 가슴에 새겨졌다. 나의 첫 번째 졸업식은 아이들과의 첫 이별이자 아이들 중 어떤 아이가 맞는 지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이들과의 이별과 내가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는 모습 또한 보육교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길을 잃은 보육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기관마다 상이한 것이 많다. 서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오는 방법, 놀이 형태 등등...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직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기관을 옮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개인적인 사정, 새로운 기관으로의 이동, 진학, 결혼 등(이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던 도중 퇴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글이 있어 자세히 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로 '기관에서 롤 모델이 더 이상 없을 때' 라는 이유가 적혀져 있었다.

필자는 이에 크게 동의하는 바인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선임교사 2명이 롤 모델 역할의 수행하고 있었으나 2명의 퇴직이 결정된 것이다. 필자의 성격은 낙관주의의 극한을 달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음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려는 모습으로 1년을 결정하였지만 사실 커다란 고민에 빠져있었다. 선임 교사의 뒤에 숨어 아이들과 놀이만 하던 내가 과연 학급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새로 기관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나의 동료 교사가 되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니!

학급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것에는 스트레스가 적으나 동료 교사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는 다수이다. 이는 인간관계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자신이 결정해놓은 교사관이 어긋나는 경우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대다수일 것이다. 다행히도 옆 반에 배치 받으신 헤드 선생님은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셨고, 그 1년은 나에게도 값지면서 의미 있는 가장 빛나는 1년이 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아직도

나는 내 롤모델 분들과 함께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보육교사의 길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누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또한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나 또한 그들처럼 되기 위해 습관을 만들고 개척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내가 되고 싶었던 롤 모델들이 있었고, 또한 다른 선생님들에게 내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자부심 또한 그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 <첫 선임교사로서의 발걸음>

이제 새로운 2년차의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순간. 새로운 동료 교사는 초임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모든 직업이 경력자를 바라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입의 배치가 반갑게 느껴졌으며, 신입의 특성 상 특유의 열정과 아이디어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것. 그리고 나보다 낮은 연차여서 안심하고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있음을 나는 부정하지는 않겠다.

해당 이야기는 윗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첫 선임교사로서 또는 실습생을 받아야하는 미래의 보육교사들로서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여 다른 페이지로 구분해놓았다. 선임이라 함은 뭐든지 잘하고, 앞에서 방어해주며, 히어로같은 존재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해주길 바란다.

1년차와 2년차. 크게 다른 점이 있을 리가 없다. 물론 경험 상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듯 그 생각의 깊이나 수준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사로서의 스킬은 반복 학습으로 증진되는 것이 많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모습을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필자도 해당 직업을 선택하였을 때에는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직업으로 인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롤모델의 모습을 보며 교사 또한 아는 만큼 보이며, 질리도록 많은 공부를 해둔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선임교사로서의 역할. 이는 후임 교사들이 바르게 직업에 대해 인지하고 그 길을 닦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길을 닦는 데에는 도구가 필요하듯 항상 자신의 지식을 발전시킬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정진해야 한다. 이는 자기 발전을 과제로 삼는 필자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육교사 직업 선택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 〈잊혀지지 않는 첫 아이들〉

교사로서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나 사실 아이들과의 시간이 교사가 가장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일 것이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며 상호작용이 진행되고 아이들의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직업인 보육교사는 자신의 탐구력을 항상 실험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직업이다.

이에 따라 1년을 보낸 필자는 ‘처음’이라는 단어의 특별함에 대해 알게 되는데 첫 아이들과의 1년이 너무나 값지고 기억에 남아 학급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증세는 2개월간 계속 되어 다른 교사들과도 상담을 해보았지만 작년 아이들이어서 후유증이 남는 듯 하다며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사실 초임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첫 해에 이 아이들을 맡게 된 건 선생님의 운이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다. 이 말이 실제로 느껴지는 데에

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때는 정리시간이었다. 보통 만 5세의 정리는 무난하게 이루어진다. 아이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경력이 짧게는 1년에서 길어서 5년인데 그 시간동안 정리를 하루에 2~4번씩 한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러하듯 만 5세의 정리시간은 교사가 끼어들 틈은 피아노로 정리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시간을 안내해주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정리시간이 시작되자 나에게 다가오더니 이야기했다. ‘선생님 교실 밖에 나가 주세요.’ 아무리 교권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나에게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다. 초임 차에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상황이라니..... 필자는 수치심과 교육자의 본능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한 유아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래? 선생님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해서 나갈 수 없는데.....” 그러자 이야기를 한 아이가 활짝 다시 웃으며 나에게 대답해주었다. “선생님이 나가있는 동안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선생님을 깜~짝! 놀래어드리려고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과의 1년이라면 평생 기억에 남을 1년이 될 것이라고. 어떠한 경험이든 첫 경험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걸 운이 결정하는 부분도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 덕에 필자는 아직 보육교사를 하고 있으며 여전히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적어 놓으려 한다.

### <보이기 시작한 아이들의 매력>

물론 초임 시절에 만난 아이들과 멋진 1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학급, 새로운 동료 교사와 함께 학급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아이들의 매력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평소 아이들이 보여주었던 배려하는 모습, 선생님을 생각해 주는 이야기, 툭툭 튀는

생각들. 어떤 일이든지 선생님을 찾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었던 아이들이 계속 옆에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또 하나의 멋진 1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아직도 나는 이 해의 아이들과 연락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1년차 때에는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이제 1년이나 아이들을 보았으니 더 사랑스러운 아이는 없을 거야. 매력적으로 느끼기엔 어려울 것 같아. 라는 한계점을 스스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해가며 아이들마다의 매력이 있고 이를 찾아가는 탐구자이자 교육자인 나를 보며 새로운 호기심을 계속 불태울 수 있게 된 것이다.

### 〈선생님은 다음에 놀자〉

그렇게 행복한 2년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과다한 서류 업무는 나를 옥죄기에 충분하였다. 당시 14시간 근무가 모두에게 부여되며 체력적 한계를 느끼며 교실에서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리고 있을 때. 반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오늘 우리랑 놀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아이가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내가 보육교사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끌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한 것인데 하루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내가 그 순간 너무 미워 눈물이 났다. 필자는 질문을 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음날부터는 꾸준히 함께 놀이할 것을 약속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여도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사가 아니다. 교사의 존재 이유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적합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항상 교사들이 노력해야하는 부분이 이것이며 아직도 필자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 즐겁다면 이 직업에서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세 번째의 아이들>

행운의 초임, 행복의 2년차.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깨달음이 가장 많았던 3년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지금까지 행운이 잇따랐던 필자에게 다음 해의 재직은 당연한 것이었다. 비록 서류 업무가 아직 익숙치는 않았지만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간은 항상 힘이 되었기에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새로운 동료 교사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은 2달을 넘기지 못했다. 당시 필자의 반에는 성은이(가명)라는 아이가 있었다. 이전부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교사나 유아와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우리 학급이 아닌 일기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하지만 처음 분노를 표현한 날 나는 학급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물건을 던지고, 주변에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를 두고 어찌 학급 운영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의 아이들에게는 사회성의 개념이 아직 바로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 해 나는 결의를 다졌다. 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기억되기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사회성을 발달해보겠다고. 목표가 정해졌으니 실행까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15명의 아이들의 사회성을 별도로 측정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반복적인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나와 동료 교사가 지치기에는 3개월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2명의 교사로도 부족한 이 학급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과 아이들을 도울 수 없다는 아쉬움이 소용돌이처럼 내 가슴에 파고들었다.

폭풍같은 1년을 보내고 다음해. 고맙게도 어린이집에 찾아와주시는 학부모님이 있다. 항상 건물이 보이면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한다는 아이들 탓에 들리게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 좋은 선생님이 아니기를 마음 먹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에게 항상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기억에 맴도는 한 해였다.

## <결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보면서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에게 득이 된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특출나게 한 가지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식과 이를 실행하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 주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담긴 한 해를 보내고 난다면 아이들의 발달이 눈에 띄게 보이고, 발달하는 모습이 눈에 새겨지면서 잊을 수 없는 1년이 당신에게 선물이 될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이다.

교사로서 아쉬웠던 부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항상 그 아쉬움을 이기려고 노력하였고 같은 실수를 아이들에게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사는 항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사에 관하여’ 라는 집단에 속해있다. 다양한 교사들과 다른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로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지만 계속 발전하고 늘어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더 많은 교사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작은 변화들도 모두 유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교사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는 것이기에 교사들도 모이고 서로 이야기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 [공론장⑤]

지금 아이들은 어떨까?

김예은

# 지금 아이들은 어떨까?

김예은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한 켠에 추억의 향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놀이터 돌담에 걸터앉아 풀잎과 꽃잎으로 소반을 지으며 맡았던 진한 풀꽃 내음, 어두워진 하늘 속 친구와 기약 없는 만남을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코끝을 채우던 달짝지근한 반찬 냄새, 약속하지 않아도 놀이터엔 항상 아이들이 있었고 이름은 알지 못해도 서로 웃음 한번 지으면 친구가 되었고 그렇게 ‘동네 친구’를 사귀고 또 하나의 추억들을 만들어 갔었다. 이렇게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중 일부이지만 그 일부들이 모여 만들어진 어린 날의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일 때 달짝지근한 안주 거리가 되어 주기도 한다. 그런 어린 날의 기억들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교사로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해보려 한다.

## 영유아 교사가 바라보는 유아들의 생활에 대한 비판점

### [1] 길을 잃은 특별활동

대부분의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저마다 특색있는 특별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유행을 따라 특별활동이 결정이 되는 원이 있고 고유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도 있다. 문제는 특별활동의 여부로 그 기관의 평가로 이어져 특별활동 자체가 종종 길을 잃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지인 교사와 특별활동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원장님의 자유분방

한 교육관으로 특별활동이 매년 바뀌고 쏟아지는 학습지 활동 때문에 교사 주도하에 학습지를 끝내기 바쁘다는 이야기였다. 학습지 하기 벅찬 어린이집 일상에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낄 정도이다. 발달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들, 교사 주도하에 이뤄지는 활동들..특별활동은 누구 위한 활동일까?

## [2] 우리 아이는 '예쁘게' 키워야지

열 달을 품었다. 매운 음식을 무척 좋아하던 나였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 열 달을 참았다. 모든 오감이 예민해지고 잠조차 편하게 잘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영겁의 세월 같았던 시간들이 가고 고된 진통 속에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 벅찬 감동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만 마음 속 흔들리지 않는 다짐 하나 '우리 아이는 예쁘게 키워야지'

조리원 동기 엄마들의 이야기와 주변 다둥이 엄마들의 조언을 들어보니 요즘엔 태블릿으로 동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한다. 효과음도 나오고 생생한 성우들의 연기라면 좀 더 재밌게 동화를 읽어주겠구나 조금은 비용 부담이 있지만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엄마라면 내 자식이 다치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다.

'아가 여기 봐봐 아기팽귤이 뜨거운 물을 만졌더니 손이 빨개지면서 울고 있네? 뜨거운 물은 만지면 안된단다.'

'아가 이것 보렴 엄마 손을 잡지 않고 혼자 걸어 다니면 다칠 수 있단다.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엄마 손을 잡고 다녀야 해 알겠니?'

'아가 밥 먹을 땐 포크로 장난치면 안돼. 태블릿 만화에서도 나온거 기억나지?'

자녀를 가진 엄마의 시점에서 글을 써보았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아이에게 환경을 선택하고 경험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시선으로 아이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영상으로 뜨거운 물은 만지면 안된다고 가르쳐도 ‘뜨거운 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그 물의 온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세뇌’되게 된다. 경험과 세뇌는 다른 것이다.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태도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의지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아이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어릴적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성향은 결정이 되므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때로는 성취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3] 미디어의 유혹

필자가 미용실에 갔을 때의 일이다. 머리를 감고 밖으로 나오니 15개월 전후로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아빠에게 안겨 울면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엄마가 멀리 있는줄 알았으나 바로 앞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아빠가 안고 있었지만 낯선 공간에 엄마와 떨어져 있으니 불안했는지 계속 엄마에게 손을 뻗으며 애타게 엄마를 찾고 있었다. 아이가 지쳐 목소리에 힘이 없어질 만큼 긴 시간 동안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찾았고 엄마는 반응을 해주지 않았다.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이씨, 아이씨’하자 아빠와 엄마는 ‘그런말 하면 안돼!’라고 말하곤 핸드폰을 꺼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미용실은 발랄한 동요만 퍼졌고 아빠는 ‘진작 줄 걸’이라고 말하며 흐르던 진땀을 닦아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필자로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15개월 정도 되었다면 아이는 엄마의 어조와 간단

한 단어를 통해 말의 뜻을 이해한다. 낯선 환경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아이에게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고 ‘엄마 여기 있을거야 괜찮아’라고 말 한마디 했다면 아이의 울음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아이는 안정감 속에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학부모상담기간 때에 남자아이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하셨었다. 워낙 신체적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 집에서 침대를 트램플린 삼아 뛰어다니고 어머니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해결방안으로 영상을 한 두 번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는 척하다 후에 이불 속에서 몰래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웃기고도 슬픈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일인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함으로 미디어는 다채롭게 확장되었다. 거기에 발 맞춰 유아와 관련된 미디어도 섭섭지 않을 만큼 보이게 되었다.

#### **[4]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부모 상담기간이 되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질문 중 하나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이다. 의외로 학부모님들은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

교육프로그램에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유행속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초보 학부모들은 맘카페에 가입을 하고 쏟아지는 ‘카더라 정보’속에 여러 가지 놀이와 경험을 아이에게 제공한다. 덕분에 인근 문화센터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성행을 이루게 된다. 화려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오아시스 속에 해갈 되지 못한 갈증들을 고가의 장난감을 사는 것으로 달래는 모습도 보기도 한다.



분명 아이의 발달에 좋다고 하여 큰 마음먹고 구매한 장난감들인데 정작 아이들은 관심 없을 때 허무해진다고 낚두리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한다. ‘어머님 뭘 해줘야한다는 강박감을 내려놓으세요.’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성인보다 사전지식이나 경험이 현저히 적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모든 것이 서툴고 새롭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놀이로 모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돈을 주고 받으며 물건을 사는 것,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 작고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해내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겐 새로운 경험이고 놀이이다. 가족들을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은 기본생활능력을 기를 수 있고, 외부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을 놀이를 통해 모방함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된다.